

# 《Grammaire Coréenne》의 강독 텍스트 분석\*

장 소 원\*\*

## I. 들어가기

본고는 리텔로 대표되는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집필한 《Grammaire Coréenne》(이후 GC로 칭함)의 뒷부분에 실려 있는 단계별 한국어 연습 부분을 한국어 학습을 위한 강독교재로 간주하고 그 체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가 이 부분을 강독교재로 보는 이유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가 이론과 실습을 구분하고, 실습을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연습 강의’를 넣었노라고 직접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서울 공통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문법 전반을 체계화했다는 의의뿐만 아니라,<sup>1)</sup> 한국어 능력 향상에 따른 수준별 강독 텍스트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교재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

\* 이 논문은 2011년 1월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앞선 한국어학 저술이 방언자료에 의존한 국부적인 서술에 불과했으므로 서울 공통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 전반을 체계화한 《Grammaire Coréenne》이 지니는 의의는 무척 크다. 고영근(1983: 262) 참조.

2) 한국어 문법을 연구한 최초의 저술로는 영국 선교사 로스(Ross)의 Corean Primer (1877, 상해)와 1870년 만주 주재 선교사인 매킨타이어(MacIntyre)가 저술한 Notes on the Corean Language(조선어론)이 있지만, 1840년대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한 이래 30여 년에 걸친 한국어연구의 총결산이라 할 G.C.는 이후 언더우드의 한영문법(1890)을 비롯하여 여러 문법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GC를 한국어 학습교재로 파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의 전체 제목에서 나타난다. 전체 제목은 다음과 같이 책 표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rammaire  
Coréenne  
précédée  
D'UNE INTRODUCTION  
sur le caractère de la langue coréenne, sa comparaison  
avec le chinois, etc.  
  
SUIVIE  
D'UN APPENDICE  
sur la division du temps, les poids et mesures, la boussole,  
la généalogie  
  
AVEC  
UN COURS D'EXERCICES GRADUÉS  
pour faciliter l'étude pratique de la langue<sup>3)</sup>

‘한국어의 특성, 중국어와의 비교 등에 대한 서론이 앞서고, 시간 분할, 무게, 도량형, 방위, 인척관계에 대한 부록이 뒤에 오며, 언어의 실제 학습의 편이를 위한 단계적 연습 강의가 덧붙은 한국어 문법’으로 번역되는 이 책의 제목은 ‘단계적 연습강의’가 제목 다음으로 큰 대문자로 인쇄되어 있어서 이 책을 리텔 이후 가톨릭교의 선교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될 프랑스인 신부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sup>4)</sup> 또 이 책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은 단순히 이 ‘단계적 연습강의’만은 아니다. 책의 형식적인 측면인 책의 체제와 책의 내용 기술 부분에서도 이 책이 한국어 학습서가 될 것을 염두에

3) 이에 대해서는 장소원(2005-: 1010-1011) 참조.

4)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책의 예문에 순정한 구어가 반영되어 있는 점, 회화에 유용하도록 문법을 기술한 점, 이론과 실습을 구분한 점 등을 든 바 있다. 장소원(2005-: 496-498) 참조.

둔 저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책의 본문을 제외한 머리말과 서론, 부록 등에도 연습서로서의 성격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책의 총 면수는 328쪽인데 표지와 목차, 정오표 등을 제외하면 서론과 부록을 포함하는 본문이 총 196쪽이며 ‘단계적 연습강의’(Cours d’exercices gradués)가 100쪽을 차지한다.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단계적 연습 강의,<sup>5)</sup> 즉 강독연습용 자료에 대한 세밀하고 분석적인 검토는 이 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많이 출판되고 있는 한국어 강독 교재의 편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II. G.C.의 강독 연습 부분의 체제

이 책에서 ‘단계적 연습 강의’라고 이름 붙은 부분은 형식상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유럽식 쪽표시’라고 제목이 붙은 전반부와 ‘역순 쪽표시’라고 제목이 붙은 후반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규칙을 가르치는 이론과 규칙을 사용하는 실습을 구분한다. 올바르게 말하고 쓰는 기술은 문법의 이론에 속한다. 그러나 언어 규칙들에 대한 사변적인 지식만으로 능숙하게 말하고 쓸 수 없으며,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완성된 학문의 두 번째 필수조건인 연습 또는 실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도로 우리는 한국어 문법에 이어 “단계적 연습 강의(Cours d’exercices gradués)”를 추가하였는데 이제 그 도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두 개의 상이한 방식으로 쪽수가 부여되고 있다. 첫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며(유럽체계) 별표 한 개가 부착되어 있고(\*), 둘째는 역순으로,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아시아 체계) 진행되며 별표 두 개가 달린(\*\*) 아라비아 숫자와 이에 상응하는 한자가 동시에 표기된 새 쪽수로 시작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책의 쪽수를 인쇄한 이유에 대해 “이런 방식을

---

5) 이 책의 독특한 쪽표시 방식과 전체 배열에 대하여는 장소원(2005-1: 500) 참조.

취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축자적인 번역이 필요 없어지고 번역의 도움이 없이도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는 자료들의 배열에도 고려되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열하여 학생들의 진척 정도를 따라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목차를 번역해 보임으로써 이 부분의 쪽 표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 〈표 1〉 단계적 연습강의의 목차

TABLE DES EXERCICES GRADUES(단계적 연습 강의 목차)

유럽식 쪽매김

I. 일상 용어	1*
II. 일상 관용표현	3 *
III. 상세한 가정사	4 *
IV. 격에 대한 연습	9 *
V. 관용표현	14 *
VI. 몇 문장	19 *
VII. 하우씨, 임금의 덕의 예	20 *
VIII. 상위자와 하위자 사이의 첫대화	23 *
IX. 상위자와 하위자 사이의 두 번째 대화	23 *
X. 평등한 사람들의 담화	29 *
XI.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담화	32 *
XII. 난방용 담배	39 *
XIII. 솜씨좋고 재미있는 사수	42 *
XIV. 실수한 구두쇠	45 *
XV. 소도둑	49 *
XVI. 한 똑똑한 젊은이	54 *

## 역순쪽매김

XVII. 코 이야기	— 1**
XVIII. 성은(상가승무노인곡)	四 4**
XIX. 또다른 성은(집 없는 진사들)	七 7**

6) 이 부분은 장소원(2006)의 2장에 실린 내용과 동일하다.

XX. 한량들의 내기(도깨비감사) .....	九 9**
XXI. 신선을 만난 제주목사 .....	一十 11**
XXII. 양반 노릇한 백정 .....	五十 15**
XXIII. 어린이의 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노비주인(추노(推奴)설화) .....	九十 19**
XXIV. 닭 주인 찾기 .....	二十二 22**
XXV. 무명필 임자 찾기 .....	二十二 22**
XXVI. 벼락부자 이야기 .....	四十二 24**
XXVII. 개이들(니면승과 김계락) .....	七十二 27**
XXVIII. 나귀 알 또는 나귀새끼가 된 토끼 .....	九十二 29**
XXIX. 거울의 놀라운 효과 (서울에서 거울 사온 이야기) .....	一十三 31**
XXX. 세 가지 소원 .....	二十三 32**
XXXI. 잘못 고른 결혼(중매) .....	五十三 35**
XXXII. 운 좋은 음환자 .....	七十三 37**
XXXIII. 산사람 이야기(면면편편꿀꿀) .....	九十三 39**

이처럼 목차만 보아서는 ‘단계적 연습 강의’가 크게 이분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본문을 통해 전반부의 연습 강의를 검토해보면 같은 전반부라도 그 기술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즉, 전부 16종류의 글이 실려 있는데 유럽식 쪽표시 방식을 취하는 전반부를 보면 1번 ‘일상 용어’부터 10번, ‘평등한 사람들의 담화’까지는 세로로 적힌 한글 옆에 로마자로 주음이 되어 있는 반면, 그 뒤의 글인 11번부터는 주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처음 시작하는 읽기 연습에서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 주음이 필요하지만 10과 정도를 학습한 후에는 로마자로 주음된 것을 보지 않고 바로 한글을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계적 연습 강의’의 뒷부분은 총 40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책의 맨 뒤부터 전통적인 방법으로 편찬하였고 쪽수의 표시도 책의 상단에 한자를 사용하였다라는 점에서 전반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sup>7)</sup> 앞의 〈표 1〉에서

7) 이 책의 전체적인 쪽번호 매기기에 대하여는 장소원(2005-: 500)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보듯이 책의 목차에는 ‘역순 쪽표시(Pagination inverse)’라고 하여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쪽수 표시와 한자에 의한 쪽수 표시가 병용되어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점이다. 이는 한자로 쪽 표시를 하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이 책의 독자에게 인식시키려는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쪽표시에 익숙한 프랑스 신부들을 고려한 실용적인 태도의 표본이라 하겠다. 이 뒷부분은 모두 주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로쓰기로 이루어져 있고 책의 하단에 가로쓰기로 불어번역이 적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쪽번호 매기기까지 다르게 하면서 각각의 이야기에 붙여진 번호는 앞의 16번에 이어 17번부터 33번에 이르기까지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다.

### III. 수준별 강독 연습의 검토

이 책의 ‘단계적 연습’ 부분이 어떤 내용의 글들로 이루어졌고, 어떤 질서 아래 선택되고 배열되었는지는 이 책의 머리말에 나타나 있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와 관용구, 명사의 격 또는 활용어미 연습이 먼저 제시되고 경구와 대화, 이어 다양한 형태의 담화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구어는 본래의 고유한 형태와 생생함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며, 이를 중간에 삽입된 대화들은 이야기에 극적인 모습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화 양식에 친숙해질 수 있게 해준다. 주제는 시인의 충고에 따라 ‘심각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즐거운 것에서 근엄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 많은 소담(笑談)들은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뒤섞여 있어, 학습이 흥미로운 동시에 교훈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sup>8)</sup>

즉 단계적 연습, 즉 수준에 따라 쉬운 부분에서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연습을 할 수 있게 고안된 점증적 연습을 통해 이 책이 학습시키고자 한 것은 어휘와 문법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구어 담화와 함께 소담들을 생생하게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기반을

8) AVANT-PROPOS의 vi~vij면 참조

두고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단계적 연습을 초급과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형식적으로 유럽식 주음부호로만 페이지 표시가 된 31쪽까지의 이야기는 음절마다 로마자로 주음이 되어 있고 어절별로 뜻풀이가 되어 있어서 명백히 초급 학습자를 염두에 둔 강독 연습 교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32쪽, 즉 XI번부터 60쪽 XVI까지의 연습부분은 앞과 마찬가지로 유럽식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음절별로 로마자 주음이 되어 있지 않고 어절별로 뜻풀이만 되어 있어서 중급 수준의 연습 부분으로 판단된다.<sup>9)</sup> 그 뒤의 고급 강독 부분은 유럽식 쪽번호가 전통적인 한자 쪽번호와 병기된 부분으로, 원문에 로마자 주음이나 불어로의 어휘별 뜻풀이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전체 이야기의 번역만 페이지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제 각 단계별로 그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초급 연습 부분 검토

이 부분은 G.C의 〈단계적 연습 강의〉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소제목으로 I부터 X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으며 총 31쪽의 분량이다. 그 내용은 학습의 난이도에 맞추어 초급 수준의 어휘와 구문 연습, 경어법 연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은 단순한 실용 어휘의 소개이며<sup>10)</sup> II와 III은 각기 ‘일상의 관용표현’과 ‘집안일의 세부사항’이라는 소재목을 달고 있지만 내용상 이어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II에서 ‘새벽에 나러나다’에서 시작하여 18가지 일상적 관용표현을 소개한 후, 이어지는 III에서는 일상적인 천주교 가정에서 행하는 하루의 일상사와 관련된 구문을 26까지 번호를 붙이며 소개하고 있는데 인용구문을 포함한 복잡한 접속구문을 제시하고 있어서 단계적 구문 연습을 시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9) 뿐만 아니라 31쪽의 내용이 페이지의 중간에서 끝나면서 다른 번호의 연습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내용상의 구분을 염두에 둔 편집으로 보인다.

10) I에는 옷, 사람, 몸, 집, 부엌, 짐승, 새, 시장의 8범주로 나뉘고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어휘가 로마자 주음과 함께 실려 있다.

II(1~18): 새벽에나리나다 바지넙다 저구리넙다 허리썩썩다 버선신다 단남매다  
횡전치다 니불기다 요것다 득상하다 조과하다 담비먹다 세수하다 머리벗다  
망건쓰다 부모의게평안이줌으시며못줌으심을못잡다 방이더움과량흡을무리라 무  
어슬잡수시랴는낫가

III.(1~26): 자그방에도라와서늬외의논흐드 우리부모께서이라이러흔거술원흐시  
니예비흐여야쓰겟네 니아기흐고나가뒤보고드러와밥먹고아들과딸의계쥬의은혜  
감사흐기와그구훔과득상흐는법을그르치다 삼종경을외온후스롱공상의제직분드  
로글넓으며논갈고밧매며장스질흐며장인노릇흐다가 낫이되면덤심먹고흔춤후에  
술흔두잔먹다 쏘니웃집의벗도심방을흐며고기도잡으며활도쏘며물도달니다 날이  
저물매집에도라와부모세비읍고온날에한바를다부모께엿즙고부모와흔가지로저녁  
밥먹다 밤이되면부모의방에니불과뇨를편흐게잘고방이추며더움을슬퍼보아안  
령이줌으심을고달흐다 즓그방에와서쳐즈를거느리고만과통경(저녁기도문)흐고  
미과경(묵주신경)외오다 술이나썩이나실과를난화먹고 각각방에난화가서불허고  
뇨깔고나불펴고옷버서해에걸고 관버서엽해노코바지저구리버서접어노코 자리적  
삼자리속것닙고버선버서목미여노코 벼기나목침을베고누어자다가꿈꾸고잠꼬드  
흐고 선후에요강에오줌누고괴동흐아쥬이복시흐야(il recommence ainsi)모의개  
가문안흐고 제방으로와소솔(sa famille)다리고조좌흐고 즓식들의게 세슈물과양  
치소곰과양치물과세슈수건을가져오라흐야놋놋치구구드 | 로쓴후에 아홉밥먹을  
제어린아들은부친과겸상흐고 어린뜰은모친과겸상흐야먹을때안히가도흔거술쟝  
부의개권흐고 어린아들은아비서슬가직싱각근절흐야어미를보고흐는말이어머니  
는마치(mais)아버지만주네흐니 어린뜰은어미편을들어올아버를쑤지져그놈괴이  
흔놈이라흐고 부모는크게웃고다먹은후에반후축문외와감사흐다 일기나벗이나심  
방흐라면도흔물솔질흐야안양지우고종놈벙거지씌워견마들니고 망건쓰고휘항쓰  
고갓쓰고소창웃과큰창웃과도포닙고씌매고쌈지와수건을소미에너코 안경쓰고사선  
쥐고긴담비드慵놈웃기식쏘고 나갈째다른사름이암흐로오면이놈오지말아흐고지  
나가심방흐고도라오다

IV에는 한국어의 독특한 격조사 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으)로’, ‘을/를’, ‘-에게’, ‘-의’, ‘-에’ 등의 격조사가 사용된 것과 대격조사 등의 격조사가 생략된 것 등 106가지의 다양한 격조사의 용법을 관용구성으로 묶어 익힐 수 있도록 배열해놓았다. 격조사의 연습하기 위해 쓰임이 다양한 ‘(으)로’를 제일 앞부분에 위치시키면서 이 조사를 연습하기 위한 예문을 21가지나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V는 좀 더 긴 문장으로 관용적인 구문 80종을 들고 있고 VI은 성실한 생활을 독려하는 교훈적인 성격의 여섯 문장이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VI(1~6): 맛당흔 때에 공부흘 날이 만다닐 우 지말나 무정흔 세월이 물흐름 같으니라 청춘의 공부를 헛 엿다가 흰서리가 머리에 써러지면 한 헛 여도 흘 일업느니라 샤름이 빈 손으로 세상에 애다가 빈손으로 도라가니 세상일이다 이러 헛니라 미화가 봄전에 몬져꿔 여살구꽃 치더팀을 웃더니 살구꽃 치원째에는 미화의 늙음을 도로 혀웃느니라 사름의 엉고 일 흄과 영화롭고 곤고 흄 이각각 째가잇느니라

VII은 어진 임금인 하우씨의 성덕을 옮긴 것으로 13번까지 번호가 이어지며, VIII부터 X까지 번호가 붙은 연습 부분은 경어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기 위한 부분이다. VII는 단문형식의 응답문으로 ‘웃사람이 아래사람에게 뜻는 말’이라는 제목 아래 상위자와 하위자가 처음 만나 나누는 대화문을 상위자인 선교사를 질문하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흐라체를 써서 표현하는 반면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으로 설정된 하인은 ‘먹엇습느니다(MEK ET SĂP NĂI DA)’와 같이 합쇼체를 써서 74까지의 번호를 붙이고 있다.<sup>11)</sup> IX는 ‘아래사람이 웃사람의 뜻을 듣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위자인 ‘하인’이 ‘훗나잇가’와 같이 합쇼체로 질문하고 상위자인 ‘선교사’가 흐라체로 대답하는 식으로 19번까지 설정되어 있다. 이어지는 X은 ‘평등기리 헛느니 말’이라는 제목으로 20번까지 두 사람이 하게체의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초급 강독 연습을 위한 부분은 총 10개의 소제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소제목 아래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다양한 문법사항을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독 수준이 초급에 해당 하므로 이 글들은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다양한 문형과 문법 사실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회화를 우선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로마자 주음을 보면 이 당시에는 합쇼체이며 ‘느니다’의 발음이 [nai]대였음을 알 수 있다.

## 2. 중급 연습 부분의 검토

XI부터 XVI까지 이어지는 유럽식 쪽표시 방식 연습의 뒷부분 역시 내용상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은 실용적인 한국어를 연습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해오는 옛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XI은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담화’라는 제목의 글로 본문에는 ‘사름이처음으로맞나인스흘째  
흐는말’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앞의 VIII ~ X글과 성격이 유사해 보이지만, 그 실상을 보면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동행을 하여 길을 가면서 각자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쉽게 헤어지는 과정을 77번 까지의 번호를 붙여가며 마치 옛날이야기처럼 기술하고 있다.

XII의 ‘난방용 담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한 양반 부자가 추위를 못 이겨 담배로 몸을 덥히려다가 머리를 태우고 만다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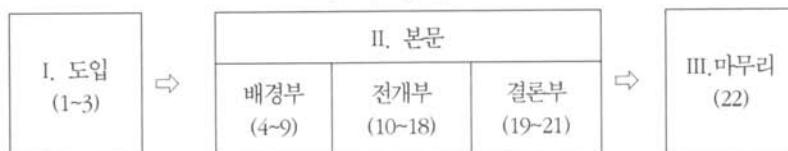
1. 셔울에흔가난흔냥반이잇셔
2. 심히가난훔으로각각방을예비치못흐고흔방에서부즈 | 흔가지로거쳐흘식방가온  
대병풍을치고
3. 부친은아래목에서줌으시고아들은웃목에서자는자라
4. 아들이밤마다식벽이되면너리안자담비를먹으니부친무르듸
5. 애너는엊지흐야미양식벽이면담비를먹느냐
6. 아들이더답흐드비듯시되와먹고도시부읍고또치을때에담비를먹으면여한도  
조곰되는듯흐읍기애식벽마다먹습느니
7. 야그러면내가치워견될수업스니조곰먹으면도켓다
8. 그리흐읍시지오담비흐드리를담아부쇠깃식불을붓쳐담비에드혀병풍우흐로안즈  
서넘기너부친이누어셔밧아먹더니
9. 날이치운고로두릉다리(솜을넣은 모자)를씻는자라
10. 담비불이두릉다리에써러져튼니깐도로머리에더운거운이조곰잇순즉부친이말  
흐드리야그것미우도타이한이과히되는고나
11. 아들이굴으드어한이조곰되는듯시부읍지어한이과히될수야잇습느잇가
12. 부친이굴으드야웨그려리지금은미우더웁다
13. 아들이굴으드그럴수잇습느잇가
14. 아니미우쓰겁다

15. 쓰겁단이오그럴길잇습՞잇가
16. 얘야지금은바로불이나는듯시부다
17. 부리나단이오밍낭한말슴도흐심니다
18. 쯤으로불이낫다담비란거시장히더운거실다네이것보아라약간불은불이아니냐
19. 아들이니려나보니불이크게나서부친의두룽다리와슈염이다트는지라급히순후에부친이굴으덕
20. 업다애네담비불미우豆타흐여진로흐시니
21. 그아들이인흐야다시담비를아조아니먹었다흐니
22. 거짓말이라도혹그럴뜻흐다흐니라

이 글은 가난한 아버지가 한기를 막을 목적으로 아들에게서 넘겨받아 피운 담배의 불이 모자에 옮겨 붙어 모자와 수염을 태우고만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담고 있다. 전체 구조는 이야기의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야기의 본문 그리고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으로 나뉘며 이야기의 본문은 다시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4~9)과 사건의 빠른 전개 부분(10~18)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 부분(19~21)으로 나뉘는데 이를 표로 그리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드러나듯이 이 이야기는 삼단구성을 취함과 동시에 본론이 다시 도입부와 전개부 그리고 결론부로 잘 짜맞추어진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 편의 완결된 강독 텍스트로서 가능한다. 특히 서론은 1번의 ‘셔울에Hon가 난Hon낭반이잇서’로 시작하여 ‘자는지라’로 마무리됨으로써 이야기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형식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담배를 받아 피울 때까지의 배경부와, 담뱃불로 인해 긴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전개부 그리고 불을 끄고 난 후로 아들이 담배를 안 피

〈표 2〉 전체구조



12) 각 문장의 앞에 붙은 번호는 원문대로임. 줄바꿈은 필자.

우게 되었다는 뒷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완벽한 스토리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22번 문장에서 ‘거짓말이라도혹그럴듯 허다하니라’라고 평가하며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강독 교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XIII의 ‘솜씨 좋고 재미있는 사수’는 전라도의 한 사수가 뛰어난 말재주로 병조판서의 마음을 사서 출세를 하게 된 이야기이다. XIV는 ‘실수한 구두쇠’라는 제목의 글로 서울의 인색한 재상이 자기 환갑음식을 아끼려다가 실수를 한 후 뉘우치는 내용의 이야기이며, XV의 ‘소도둑’은 소를 훔친 도둑이 꾀를 내어 뒤를 쫓아온 주인을 따돌리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마지막 이야기인 XVI의 ‘한 똑똑한 젊은이’는 경상도 예안의 정충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주인공이 자신의 기지로 성질이 사나운 감사와 임금으로부터 별 받을 일을 무사히 넘기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이 중급 강독 연습에 실린 이야기들은 이 책의 저자가 남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자 나름의 평가를 곁들여 각색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 점은 지역별로 회자되는 유명한 설화와 민담을 구체적인 인명, 지명을 거론하며 소개하는 고급 강독 연습과 대조된다.

### 3. 고급 연습 부분의 검토

《Grammaire Coréenne》에 제시된 한국어 자료들은 당시의 한국인에게서 채취한 것이 많았을 터이지만 특히 이 뒷부분의 강독 부분을 보면 이 책의 필자들은 종래의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고 당시에 회자되던 여러 이야기에서 연습용 강독 자료를 채취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집필자들의 중국어 또는 한문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다다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sup>13)</sup> 또 ‘단계적 연습 강의’의 뒷부분에 실려 있는 이

13) 책의 서론에서 필자들은 당시 한국인의 문자생활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한문만을 쓰는 경우는 학문이나 공문서이고 대부분의 문학작품의 경우는 한글로 쓰지만, 이 경우도 한국어를 씨실로 하여 한자 어원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야기들 가운데는 당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즐겨보던 설화집을 참조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들도 많다.<sup>14)</sup>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단계적 연습 강의’의 뒷부분은 프랑스 신부들의 독창적인 저작이 아니라 당시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고급 강독 연습의 글들을 부록에서 요약하여 제시하고 야담이나 패설집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sup>15)</sup>

### (1) XVII. 코 이야기(一 - 三 / 1<sup>\*\*</sup>)

이 이야기는 현재 전해지는 설화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혹시 음담을 변형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은 1700년대에 성여학(成汝學)이 지은 한문 소화집(笑話集) 『속어면순(續禦眠樁)』에 수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방귀 꿔는 여인을 겁탈하는 내용 등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과 음담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확인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겠다.

### (2) XVIII. Trait de sollicitude royale(성은)(四 - 六 / 4<sup>\*\*</sup>)

이 작품은 20세기에 쓰여진 『揚隱闡微』에 〈喪歌僧舞老人哭〉으로 수록되어 있다. 『양은천미』에는 시대적 배경이 인종(仁宗)대로 되어 있고, 주인공의 이름은 이효달(李孝達)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구전설화로는 전국에 걸쳐 수집되고 있어서 분명히 『양은천미』보다 이른 시기에 수집된 자료도

고 지적하고 있다.

14) 고급용 강독 연습 부분의 글들 중에는 당시의 패설집이나 『靑邱野談』과 같은 애담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과 유사한 것들이 보인다. 한 예로 심화연습의 四 - 六쪽에 걸쳐 실려 있는 XIII번째 이야기인 ‘trait de sollicitude royale’(성은)는 18~19세기 대부분의 설화집에 ‘상가승무노인탄’ 혹은 ‘상가승무노인곡’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이야기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구비문학대계』를 보면 이 이야기는 내용상으로는 5종류의 변이형을 지니면서 서울, 경기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총 26지역에서 채집된 바 있다.

15) 이 부분은 장소원(2006)에 실려 있음.

있을 듯하며 이 작품은 중국 문헌에도 실려 있다고 한다.

(3) XIX. Un autre trait de sollicitude royale(또다른 성은)(七 - 九 / 7<sup>..</sup>)

이 이야기는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문헌, 즉 패설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와 정황이 유사한 작품은 야담집에서도 보인다. 예컨대 배가 고파서 수박씨를 먹은 부인 이야기처럼 가난함을 참고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정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青邱野談』 수재 〈의수읍재상상구은(擬腹邑宰相償舊恩)〉)

(4) XX. Un pari décidé par le lutin(한랑들의 내기-도깨비감사)(九 - 十 / 9<sup>..</sup>)

출전 미상

(5) XXI. Une monomanie spirprise confondue(신선을 만난 제주목사)(十日 - 十四 / 11<sup>..</sup>)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숙종 때 안서우(安瑞羽)가 지은 한문소설 〈金剛誕游錄〉 유형, 즉 〈가짜신선탄령〉과 긴밀한 관련을 보인다.

(6) XXII. Noblesse usurpée(양반 노릇한 백정)(十五 - 十八 / 15<sup>..</sup>)

『青邱野談』 수재 〈송반궁도우구복(宋班窮途遇舊僕)〉과 동일한 이야기이다.

(7) XXIII. Un maître d'esclaves délivré de la mort par la sagacité d'un enfant(어린이의 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노비주인, 추노(推奴) 설화)(十九 - 二十一 / 19<sup>..</sup>)

『青邱野談』 수재 〈겁구주반노수형(劫舊主叛奴受刑)〉과 동일한 이야기이다.

(8) XXIV. A qui la poule(닭 주인 찾기)(二十二 - 二十三 / 22<sup>++</sup>)

출전 미상

(9) XXV. A qui la pièce de toile(무명필 임자 찾기)(二十二 - 二十三 / 22<sup>++</sup>)

출전 미상

(10) XXVI. Histoire d'un parvenu(벼락부자 이야기)(二十四 - 二十七 / 24<sup>++</sup>)

이야기의 정황은 『溪西雜錄』과 『紀聞叢話』에 수재한 박문수 이야기와 동일하나 변이의 폭이 너무 커서 동일한 이야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11) XXVII. Fils de chien(개아들 - 니면승과 김계락)(二十七 - 二十八 / 27<sup>++</sup>)

부분적으로 『破睡椎』에 실려 있으나 이 이야기처럼 깊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이야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12) XXVIII. Un Oeuf d'âne ou un lapin devenu anon(나귀 알 또는 나귀새끼가 된 토끼)(二十九八- 三十 / 29<sup>++</sup>)

출전 미상

(13) XXIX. Prodigieux effets d'un miroir(거울의 놀라운 효과, 서울에서 거울 사온 이야기)(三十一 - 三十二 / 31<sup>++</sup>)

중국의 야사집인 『笑林』과 『太平廣記』 등 다양한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설화집인 『攬睡襍史』, 『罷睡錄』 등 다양한 문헌에 실려 있다.

(14) XXX. Les trois souhalts(세 가지 소원)(三十二 - 三十四 / 32<sup>++</sup>)

서양에도 유사한 동화가 존재할 정도로 변이형이 많은 설화이다.

- (15) XXXI. Un mariage mal assortie(잘못 고른 결혼 -중매)(三十五 - 三十七 / 35<sup>\*\*</sup>)

우리나라의 패설집에서 볼 수 있다.

- (16) XXXII. Un galeux fortuné(운 좋은 음환자)(三十七 - 三十八 / 37<sup>\*\*</sup>)

『攬睡襍史』에 있는 음담을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잡사』의 〈喪人知時〉를 보면 이 글에서는 ‘옴’으로 나타난 부분이 〈상인지시〉에서는 남자의 성기로 되어 있다.

- (17) XXXIII. Épisode d'un montagnard(산사람 이야기), 면면편편꿀꿀(三十九 - 四十) / 3

근대의 구전설화로 존재한다.

#### IV. 결론

이상에서 리델로 대표되는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집필한 『Grammaire Coréenne』의 ‘단계별 한국어 연습’을 한국어 학습을 위한 강독교재로 간주하고 그 체계와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19세기에 이미 이 정도로 체계화된 외국어 교육 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책을 본격적인 한국어교육학의 시발점으로 보는 데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국어 교재의 일종으로 파악한 후에는 강독교재로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강복수(1958), 「國語文法의 史的動向」, 『논문집』 1(청구대), 29-33.
- 강이연(2004), 「19세기 후반 조선에 파견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불한 사전』(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연구」, 『교회사 연구』 22(한국교회 사연구소), 173-211.
- 고영근(1976), 「19世紀中葉의 불란서 宣教師들의 韓國語研究에 대하여」, 『김형 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 국어교육과(고영근 1983에 실림).
- 고영근(1983), 『國語文法의 研究: 그 어제와 오늘』, 텁출판사.
- 고영근(1985), 『國語學研究史: 흐름과 動向』, 학연사.
-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영민 외(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 한국어.
- 그리피스(W.E. Griffis)(1882), “The Corean Language” –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歷文 02-07].
- 김민수(1958), 「國語 文法學史 論考」, 『30주년기념논문집』(중앙대학교), 229-264.
- 김민수(1987), 『國語學史의 基本理論』, 집문당.
- 김완진(1984), 「한불자던 및 한어문전의 성립에 공헌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연구」, 『목천 유창균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형설출판사), 139-150.
- 달레(C. Dallet)(1874)/안용렬·최석우(역주)(1980), 『한국 천주교회사』, 한국교회 사연구소.
- 리델 원저/한국교회사연구소(역주)(1994), 『리델문서 I(1857~1875) – 병인양요 와 선교사 활동의 좌절』(『조선교구 역대 교구장 서한집』 1), 한국교회사 연구소.
- 리델(F. Ridel)(1881) 등/고길수 (역)(2003), 「Grammaire Coréenne 서문」, 『형 태론』 5.1, 191-196.
- 빠리외방전교회 연보(1878~1894)(1983), “Compte rendu de la Société des M.E.P.”, 『교회사연구』 4.
- 송민(1987), 「프랑스 宣教師의 韓國語 研究課程」, 『교회사연구』 5, 133-148.
- 심재기(1985), 「Grammaire Coréenne의 연구」, 『한국천주교회창설이백주년기념 한국교회사논문집』 II, 567-597.
- 언더우드(H.G. Underwood)(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歷文』 02-11, 12].

- 오세완(1987), 「한국에서의 프랑스 선교사들의 출판·언론활동」, 『교회사연구』 5, 125-148.
- 유홍렬(1962), 『高宗治下 西學受難의 研究』, 을유문화사.
- 이승녕(1965), 「天主神父의 韓國語研究에 對하여」, 『아세아연구』 8.2, 205-217.
- 장소원(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 원의 경우」, 『언어와 문화』 창간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7-226.
- 장소원(2005-), 「국어 문법의 연구와 Grammaire Coréenne」, 『우리말연구 서 른아홉 마당』, 태학사, 1007-1031.
- 장소원(2005-), 「Grammaire Coréenne의 재조명」, 『형태론』 7.2, 489-506.
- 장소원(2005-), 「외국인 대상 한국어문형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Korean 연구 와 교육』 창간호, Korean 교육 연구 국제 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어문학연구소, 93-120
- 장소원(2006), 「19세기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강독교재 연구」, 『이병근선생 퇴 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구비문화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